

대칭서술어의 통사, 의미론적 특성

—형용사를 중심으로

유 필 재

1. 서론—연구의 목적

우리는 언어학의 연구 성과가 인접과학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언어사실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 이와 같은 사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인간의 발화 속에 내재한 수학적, 논리적 관계의 발견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자연언어의 발화도 그 속 구조를 살펴보면 몇 가지 기호로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논리적 측면은 특히 의미론에서 발전되어 술어논리, 명제논리 등으로 대표되는 논리학적 의미론(logical semantics)의 여러 성과들을 낳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관계가 언어 사실에 실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여러가지 논리적 관계 중 대칭(symmetry)이라는 서술어의 논리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언어의 논리적 구조는 그 양적인 면에서 비대칭적 구조가 대칭적 구조를 압도한다. 다시 말해서 대칭적 서술어의 구조는 이같은 관점에서 이른바 유표적인(marked) 구조인 셈이다. 이렇게 특징적인 서술어의 한 측면을 대칭서술어라 이름짓고 이 대칭서술어가 이루는 통사, 의미론적 특성을 특히 형용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표이다. 모든 통사적 규칙화가 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여러가지 제약의 제 측면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대칭서술어 중 형용사의 부류에 드는 어휘들의 목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2. 기본 작업

2.1. 대칭서술어의 정의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성분인 서술어(한국어에서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가 된다.)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서술어와 서술어가 아닌 다른 필수성분과의 관계에 주의하여 서술어를 자리수 서술어로 분류하는 것은 통사론 논의에 있어 한 방법이 되어 왔다. 이 중 두 자리 이상 서술어(多자리 서술어)들은 자신을 제외한 문장의 항(term)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두 자리 서술어의 경우 이를 술어논리(predicate calculus)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면 $R(x, y)$ 라는 전형적인 규약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R(x, y)$ 가 뜻하는 바는 R 이라는 서술어에 대해 나머지 두 항 x, y 가 이 순서로 서술어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했다.

위의 예문을 술어논리로 표시하면 ‘사랑하다’는 기호 L 로 ‘춘향’과 ‘이도령’을 각각 기호 c, y 로 약속하고 $L(c, y)$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술어논리에서 시제, 상 등은 잠정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데 그것은 술어논리가 나타내는 것은 문장(sentence)이 아니라 명제(proposition)이기 때문이다.

이 술어논리 $L(c, y)$ 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L(c, y)$ 는 $L(y, c)$ 와 등가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술어논리 $L(y, c)$ 를 명제로 환원시켜 볼 때 명확해 진다.

(2) 이도령이 춘향이를 사랑했다.

예문 (1), (2)가 같은 의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두 자리 서술어는 $R(a, b) \cong R(b, a)$ 라는 식을 만족한다. 그러나 다음은 어떠한가?

(3) 이도령과 춘향이가 친했다.

(4) 춘향이가 이도령과 친했다.

위의 (3), (4)의 술어논리는 일반적인 두 자리 서술어의 양상과는 달

리 $R(a, b) \equiv R(b, a)$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술어논리의 관계를 대칭관계(symmetrical relation)라 한다. 이 경우 두 항 a, b 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진리치(truth value)¹⁾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대칭관계를 가진 서술어를 대칭서술어로 정의한다.^{2,3)}

2.2. 구문 정의

이제 우리의 과제는 자연언어 속에 존재하는 대칭관계의 서술어를 언어학적으로 형식화해 내는 것이다. 이 구문은 대칭서술어 구문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다. 서술어의 범위를 형용사로 한정했을 때 대칭서술어 구문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된다.

NP와 NP [(NP) AP]
NP NP와 [(NP) AP]

여기에서 명사구 NP 뒤에 붙은 ‘와’는 이 ‘와’가 생략될 수 없는 필수성분임을 의미한다. 단 이 ‘와’는 ‘하고’, ‘랑’과 의미의 변화 없이 대체될 수 있는데 ‘하고’와 ‘랑’은 좀 더 구어적이다(홍재성 1986b). AP는 형용사구를 가리킨다. 句의 핵(head)이 형용사인 경우이다. 위의 구문의 네 가지 가능성을 예문과 함께 보인다.

- (5) 철수와 영희가 친하다.
- (6) 영희가 철수와 친하다.
- (7) 철수와 영희가 키가 같다.
- (8) 영희가 철수와 키가 같다.

1) 우리는 여기서 특히 진리치라는 용어에 주의하고자 한다. 물론 (3), (4)는 중심의미에서는 같지만 주변적(연상) 의미에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2) Lyons, J. (1977), *Semantics I*, C.U.P. pp. 153-154.
3)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는 더 많은 제약으로 상호구문, 동반구문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 통사론적 특성과 제약

3.1. 접속 제약

3.1.1. '와'의 성격

우리가 맨 처음 이 대칭서술어 구문에 가하고자 하는 제약은 접속제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접속제약'이라는 용어는 '와'의 쓰임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중 접속만을 취하는 것이기에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와'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견해를 잠시 살펴보고 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단락의 제목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9) 철수가 영희와 닮았다.

위의 예문에서 '와'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i) 접속격, 공동격(여동격), 비교격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최현배(1965) 등에 의해 주장된 전통문법의 견해로서 '와'의 의미와 기능이 의한 분류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와'는 다음의 세 가지 다른 조사로 분류된다.

(10) 철수와 영희가 닮았다. — 접속

(11) 영희가 철수와 닮았다. — 비교

(12) 철수가 영희와 공부한다. — 공동

그러나 우선 이러한 분류는 지나치게 서술어의 의미에 얽매인 분류(김완진 1970)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11), (12)는 그 분포의 환경이 꼭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의 의미 차이에 따라 비교격과 공동격으로 달리 분류되었다. 또 (10), (11)은 김영희(1974)에서 지적된 것처럼 '문체 변이문'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과 비교로 달리 구분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ii) NP-병렬이라는 견해

임흥빈(1972b)는 위의 예문 (10)에서 '와'는 NP를 단순히 쌓는 병렬의 기능이며 이 때문에 주어의 복수대명사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0)' 그들이 남았다.

iii) 접속만을 인정하는 견해

'와'의 분류가 의미에 의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반대하여 김완진(1970)과 김영희(1974)에서는 '와'에 접속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위의 전통문법의 견해에 대한 비판과 같다. 비록 그 하위 분류에 있어서는 김완진(1970)이 문접속과 구접속으로 나누어 김영희(1974)와 다소 다르지만 그 입장은 같으며 NP-병렬이라는 임흥빈(1972b)의 견해도 넓게는 접속의 범주에 들므로 우리는 '와'에 대하여 접속의 기능만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3.2. 서술어와의 관계

일찍이 김완진(1970)에서 밝혀졌듯이 접속에는 문접속과 구접속이 있다. 그런데 서술어에 따라 그 해석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 듯하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아들과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다.⁴⁾

(14)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

(15) 하늘과 바다는 푸르다.

(13)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썼다는 의미지만 특수한 경우에 (아들과 며느리가 각기 직장이 달라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따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한 통씩의 편지를 따로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중의성은 실제 발화에서 휴지를 통해 해소되는 수가 많다.

(13)' 아들과 며느리에게 # 편지를 썼다.

(13)'' 아들과 # 며느리에게 # 편지를 썼다. (#는 휴지포시)

즉 (13)예문의 두 가지 의미는 (13)'와 (13)''에 의해 구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통사론적 논의로 넘어가서 이 경우는 접속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며 특히 문접속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의미의 예문이 축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김완진(1970)에서 재인용.

(16)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다.⁵⁾

그러나, (14)의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이다. (14)를 구접속이 아닌 문접속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

(17) 칠수가 만나고 영희가 만났다.

즉 (14) 경우는 구접속만이 가능하다.

다음 (15)의 예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15)는 (14)와는 정반대로 문접속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술어와 접속의 상관 관계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것일까?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접속이 문접속과 구접속으로 동시에 해석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18) 칠수와 영희는 거리를 내달았다.

(19) 아버지와 나는 늦게 저녁을 먹었다.

(20) 영자와 손자가 열심히 공부한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서술어들을 가진 접속들은 문, 구접속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18)에서 칠수와 영희는 공동의 목적으로 나란히 달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리 달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접속만을 갖는 (14)는 어떤 부류의 서술어들이나, 일단은 대칭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다. (14)는 앞서의 우리의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14) 칠수와 영희가 만났다.

(21) 영희가 칠수와 만났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가설에 어긋나는 반례를 찾아낼 수 있다.

(22) 칠수와 영희가 싸운다.

(23) 영희가 칠수와 싸운다.

두번째 문형인 (23)은 우리의 가정과 같이 구접속만을 갖지만 (22)는

5) 단 (13)의 문접속의 기저형이 (16)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관상 대칭서술어처럼 보이는데도 두 가지 접속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철수는 만수와, 영희는 순희와 각각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접속의 경우 완벽하게 적격인 문장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화를 포기하고 (13), (14)의 경우를 모두 ‘와’의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 서술어들로 묶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듯하다. (13)과 (22)는 우리의 정의에 따라 비대칭, 대칭 서술어로 분류되는 데 양자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문접속이 두 예문에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문장의 적격성은 (22)는 문접속 해석인 경우에 매우 떨어지고 (14)의 경우는 더 떨어진다. 둘째로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는 대칭구문이 그 자신과 유사한 상호구문, 동반구문 등과 유사하여 여러가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실 (22)의 ‘싸우다’는 동반구문인 동시에 대칭구문의 동사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즉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본고와 같이 느슨한 정의가 아닌) 진정한 대칭동사들은 문접속으로 해석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 (24)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였다.
- (25) 나와 그는 근래에 절교하였다.
- (26) 미국과 캐나다는 접경하고 있다.
- (27) 내 생각과 철수의 생각은 어긋났었다.
- (28) 한국과 중국은 끝내 수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사의 경우는 대칭성을 결정짓는 데 우리의 정의로는 부족하며 홍제성(1985b)와 같은 세밀하고 엄격한 제약조건⁶⁾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가지의 접속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순수한(엄격한 기준에 의한) 대칭동사의 경우는 구접속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를 이렇게 일단락 짓고 (15)와 같은 형용사 서술어를 검토해 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동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형용사의 경우는 대칭인 경우는 구접속만을, 비대칭인 경우는 문접속만을

6) 이 조건은 자동사의 경우에 목적어를 허용하지 않고 ‘NP와’ 보어의 구성이 되며, ‘함께’를 거부하고 ‘서로’를 수의적으로 선택하는 문장구조에서 V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를 말한다(홍제성 1985b).

배 타적으로 가진다.

- (29) 연필과 샤프는 비싸다.
 (30) 연필과 샤프는 비슷하다.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대칭인 ‘비싸다’는 문접속만을, 대칭의 경우 ‘비슷하다’는 구접속만으로 해석된다. 형용사의 대칭성은 접속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는 G. Lakoff, & S. Peters(1966)에서 영어의 상태동사(stative verb)와 접속의 관계를 논하면서 암시된 바 있는데 한국어의 형용사가 대체로 영어의 상태동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되는 현상이다.

3. 2. 대칭제약

앞서 지적되었듯이 대칭서술어만이 ‘NP와’를 보어르 가질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원칙도 서술어가 형용사라는 단서를 가진다. 동사의 경우는 동반구문, 상호구문도 외양상으로 ‘NP와’를 보어로 갖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 (31) 철수는 영수와 학교에 갔다. (동반구문)⁷⁾
 (32) 철수는 영수와 서로 의지했다. (상호구문)⁸⁾

그렇지만 형용사의 경우는 비대칭 서술어가 ‘NP와’를 보어를 가질 경우 부적격하게 된다.

- (33) 순자와 영자는 모자가 같다.
 (34) 순자는 영자와 모자가 같다.
 (35) 순자와 영자는 모자가 멋있다.
 (36) *순자는 영자와 모자가 멋있다.⁹⁾

7) ‘NP와’가 필수적 동사보어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서로’를 거부하고 ‘함께’를 수의적으로 선택하는 구문.
 8) 대칭구문과 흡사하나 ‘서로’가 필수적인 구문.
 9) (36)이 휴지를 사용하여 ‘순자는 #영자와 모자가# 멋있다’로 하여 순자가 주제화된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35)와 의미가 달라진다.

3.3. 공기 제약—부사와 관련하여

대칭구문과 비대칭구문은 부사와의 사이에서 공기제약을 보인다. 우선 ‘서로’는 대칭구문과는 자연스럽지만 비대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37) 철수와 영수가 서로 가깝다.

(38) *철수와 영수가 서로 게으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서로’의 의미는 상호 쌍방인데 이 상호성은 논리적으로 양측의 동등한 위치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가 대칭구문과 호응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부사 ‘모두’는 비대칭인 경우만 자연스럽다.

(39) *철수와 영희는 모두 키가 같다.

(40) 철수와 영희는 모두 키가 크다.

4. 의미론적 특성과 제약

4.1. 동질성 제약

이제까지는 대칭서술어 구문이 가지는 통사론적인 특징을 그 제약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의미론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이름붙인 바 ‘동질성 제약’에 대해 살펴 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서 제시하였던 대칭서술어 구문의 틀을 다시 보자.

NP와 NP [(NP) AP]

NP NP와 [(NP) AP]

서술절 앞의 두 명사구는 그 통사적인 결합관계에서 의미론적 제약을 받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41)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복 색깔이 꼭같다.

(42) 책상과 의자는 재료가 비슷하다.

(43) *할아버지와 책상은 다리가 비슷하다.

(41), (42)가 적격함에 비해 (43)의 예문은 의미론적 비적격성이 드러나 있다. 즉 ‘할아버지’와 ‘책상’이라는 명사구의 의미자질이 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의 가정은 ‘와’를 가지는 두 명

사구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자질의 부류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유정성>이 큰 대표자질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런데 송석중(1982:2)에는 위와 같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반례가 되는 듯한 예문이 나타난다.

(44) 철이가 악조건과 싸웠다.

(44)의 예문은 일견 우리의 가설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예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선 위의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장은 위의 문형에 언제나 일치하는 문장이 아니다. 즉 NP와 NP [(NP) AP]에는 맞지 않는다.

(45) *악조건과 철수가 싸웠다.

또 (44)의 예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정성>의 명사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46) 철수가 악조건/추위/더위/굶주림/병마와 싸웠다.

사실은 악조건과 대체될 수 있는 명사들은 모두 악조건의 하위명사들 뿐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은 비유적으로 늘 쓰이는 숙어적 표현으로 생각되며 이미 굳어진 표현이기에 우리의 가설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까지 '와'로 연결된 두 명사구가 동질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래의 예문은 어떠한가.

(47)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無間하시다.

위 예문의 두 명사구는 앞서 우리의 가정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한 문장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에 앞서의 가설에 다음 조건을 부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와를 가지는 두 명사구는 어느 정도 비슷한 자질의 부류를 공유해야 한다. 단, 그렇다고 해서 두 명사구가 동일물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예문 (47)에 지시대명사를 더하여 위의 동일물 금지단서를 피했을 때 (48)이 적격하게 되는 사실로 알 수 있다.

(48) 이 할아버지와 저 할아버지는 無間하시다.

4. 2. 상호성

우리는 앞서 통사론적 제약 중 부사와의 공기제약으로부터 대칭구문은 상호성이라는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로’라는 부사와 함께 쓰일 수 있음에서 드러난다.

(49) 한국어와 일본어는 서로 비슷하다.

(50) *한국어와 일본어는 서로 교착어이다.

상호성은 대상이 둘 이상임을 암시하는 바 (50)의 비대칭인 경우는 사실은 문점속으로서 두 개의 다른 문장으로 이해되는 이유로 그 대상이 각기 하나가 되어 적격성을 얻지 못한다.

5. 결 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대칭형용사들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문장의 두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즉 $R(a, b) \equiv R(b, a)$ 의 서술어를 특히 대칭서술어로 칭한다.

2) 대칭서술어가 이루는 구문은 아래의 두 형식이다.

NP와 NP [(NP) AP]

NP NP와 [(NP) AP]

3) 접속조사 ‘와’는 문점속과 구점속의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동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 용법이 모두 가능하고 순수한 대칭동사의 경우는 구점속이 우세하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는 대칭인 경우는 구점속만을, 비대칭인 경우는 문점속만을 가진다.

4) 대칭서술어만이 ‘NP와’를 보어로 가질 수 있다.

5) 대칭서술어만이 부사 ‘서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6) ‘와’로 연결되는 두 명사구는 어느 정도 비슷한 자질을 공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명사구가 동일물을 지시할 수 없다.

7) 대칭구문의 의미론적 특성은 <상호성>이다.

8) 대칭형용사에 해당하는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르다(틀리다) ¹⁰⁾	친하다
같다(꼭같다)	가깝다
비슷하다	無間하다
	막역하다
	절친하다 ¹¹⁾
	멀다
	무관하다

<참고논저>

- 김영희(1974), 대칭관계와 접속사 ‘와’, 한글 154.
 _____(1974), ‘와’의 양상, 국어국문학 65-66호.
 김원진(1970), 문점속의 ‘와’와 구점속의 ‘와’, 어학연구 6. 2.
 김정아(1986), ‘꼭 같다’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성, 진단학보 62.
 박준하, 김병선 역음(1991), 한국어 형용사사전, 계영문화사.
 송서중(1982), 조사 과, 를, 에의 의미분석, 말 7.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승재(1983), 혼효형 형성에 대한 문법론적 고찰, 어학연구 19. 1.
 최현배(1965), 우리말본(네번째 고침), 정음사.
 임홍빈(1972b), NP-병렬의 와/과에 대하여, 논문집(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4.
 홍윤표(1979), 국어의 조사, 언어 4. 2.
 홍재성(1985a), 한국어 경쟁구문에 대한 몇가지 지적, 한글 187.
 _____(1985b), 한국어 자동사적 대칭동사의 통사론적 정의, 인문과학(연세대) 53.
 _____(1986b), 현대 한국어 대칭구문분석의 한 국면, 동방학지(연세대) 50.
 Lakoff, R.(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ed. by C.J. Fillmore & D.T. Langendoen.

10) 전북방언에서는 혼효형인 ‘틀부다’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와 같다(이승재 1983).
 11) ‘막역하다’와 ‘절친하다’는 의미상 대칭서술어이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A와 B는 절친한(막역한) 사이이다’ 정도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 Lakoff, G. & S. Peters(1966), Phrasal Conjunction and Symmetric Predicates,
Modern Studies in English ed. by D.A. Reibel & S.A. Schane.
- Lyons, J. (1977), *Semantics* I, C.U.P.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U.P.